

January 06 교만 이기기, 겸손과 낮아짐으로

- 신명기 8:14-20

교만은 스스로 영광 받으려는 허영심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교회를 향해 부요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계 3:17).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눈,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나 경시가 아닙니다. C. S.루이스는 겸손과 경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낮아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신 8:14-20).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이란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단 한 순간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바로 당신 덕분에’ 이런 혜택을 본다면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만 바랄 때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겸손과 낮아짐으로
교만을 이기고 있습니까?

- ❶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바라봅니까?
- ❷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합니까?